

강기정 시장 “무안·순천청사 유지...행정중심은 광주”

통합특별시 청사 운영 방향 제시...3청사 체계 유지 물리적 분산 넘어 3거점 연결 ‘디지털 청사’ 구축 추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지역 맞춤 분산배치 병행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은 4일 통합특별시 청사 문제에 대해 무안청사와 순천청사를 유지하고, 행정중심은 광주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주청사·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회견을 열어 “‘주청사’라는 용어는 특별법에도 담겨있지 않은 용어”

라며 “주청사라는 무용한 용어는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 찾아다니는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시 행정의 연속성과 5급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행정의 중심 기능은 광주에 둘 수밖에 없다”며 “광주에는 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



능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동부청사는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하다”며 “통합의 실물경제를 책임질 경제 중심 ‘광역행정청’ 기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청사에는 경제 관련 부시장을 상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결국 새로운 시대, AI 시대에는 ‘디지털 청사’ 구축이 핵심”이라며 “물리적 거리를 지우고 세 거점을 유기적

으로 결합해 완벽한 연결성을 확보해 줄 디지털 행정망을 깔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에 추가 배치와 지역별 분산 맞춤형 배치 병행 구상을 밝혔다. 강 시장은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기존 에너지·문화 기관 등이 추가 이전되면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분산 배치하겠다. 필요한 경우 제2·3의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순천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반도체 팹(fab·생산공장)은 (전남에서) 순천이 아니면 할 데

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서부권도 거론되지만, 반도체 팹에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며 “섬진강의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순천(동부권)이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한 것이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추진”이라며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은 요금이싼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전 조건을 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순천대에서 열린 ‘통합 상생토크’ 행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 동부권 발전전략으로 광주·순천·동부권 연계 반도체 메가벨트 조성, 인

공지능(AI)·반도체 인재 양성 사다리 확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 중소도시형 통합특별 특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강 시장은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와 관련, “미리 잡혀있는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시장으로서 공식 일정이 잡혀 있다”며 “여러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 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될 예정이다. 다만 지금은 경선 후보자 일정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 투표참여 홍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일(3월 5일)을 맞아 목포 북항 방파제 등대에서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대통령,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의결 공포 임시국무회의 주재...중동 영향 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중동 상황 관련 대응책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첫 일정으로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재정경제부의 보고와 그에 따른 영향 점검, 대응책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 특별법 공포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지도 주목된다. 이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부터 40년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재편된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전남 여성벤처인 17명 두바이서 발 묶여 호르무즈 해협 내측 선박에 韓 선원 186명 승선

광주전남 여성벤처인 17명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광주전남 여성벤처 기업인 17명이 현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해외 산업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두바이로 출국했으며 당초 지난 2일 귀국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이 발생하면서 두바이 공항의 항공기가 결항하면서 발이 묶였다.

이들은 현재 두바이의 한 호텔에 머물며 광주시와 연락을 하고 있고 귀국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은 여행사 측이 마련한 현지 숙소에 머물고 있다”며 “안전을 고려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매일 연락을 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벤처인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는 우리 선박 26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144명을 포함해 59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외국선에도 우리 선원 42명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호르무즈에 있는 우리 선원은 총 18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계엄·탄핵·조기 대선에도...국민 행복도 높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014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 웰빙지표 ‘삶의 만족도’ 6.63점·‘행복점수’ 첫 7점대 넘어

지난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사회통합과 행복의 지표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 행복할수록 자원봉사나 기부 등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가 최근 10여년 사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먼저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웰빙 지표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띈다.

2025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3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6.05점)보다 크게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행복도는 7.01점으로 처

음 7점대를 넘어섰다. 이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6.33점)보다도 높은 수치로, 정치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긍정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사회적 신뢰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70점으로 2014년(4.59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회통합 정도 인식도 4.87점으로 2023년(4.2점), 2024년(4.32점)보다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4점 만점에 3.03점으로 처음으로 3점대를 넘어섰다. 기관별 신뢰도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

업과 금융기관, 교육계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는 70% 이상으로 높은 반면 검찰과 입법부에 대한 신뢰는 30%대에 머물러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특히 “개인의 행복이 사회 참여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와 기부,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하거나 교류할 수 있다”는 포용성은 2023년 조사 결과보다 일부 개선됐고, 청년층의 급격한 보수화나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통합특별시장 여론조사 후보 지지율 ‘들쭉날쭉’ 왜?

여론조사 기관 따라 후보적합도 격차 천차만별 ARS 방식...응답률·표본 편차·가중치 등 영향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출을 앞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후보별 지지율이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이면서 여론조사가 오히려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 실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표된 조사 대부분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낮은 응답률과 지역별 표본 편차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단체장 선호도를 조사해 공표된 여론조사는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이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전화면접 방식은 KBS 의뢰로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 1건뿐이다. 먼저 오마이뉴스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실시한 조사(1월 16~17일)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7% (총 통화 3만510명 중 1802명 응답)였다. 후보 적합도는 김영록 16.9%, 민형배 15.8%, 강기정 9.1%, 신정훈 8.3%, 주철현 7.8%, 노관규 6.8%, 이병훈 5.7%, 이계호 5.0%, 정준호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ARS 조사(1월 30~31일)는 응답률 7.1% (총 통화 2만1298명 중 1502명 응답)를 기록했다. 민형배 22.7%, 김영록 18.1%, 신정훈 9.2%, 주철현 6.8%, 강기정 6.5% 순으로 집계됐다.

2월 초 실시된 KBC·광남일보 의뢰

리서치뷰 조사(2월 2~3일) 역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 표본은 1000명이었다. 민형배 18.5%, 김영록 16.8%, 신정훈 9.4%, 주철현 7.6%, 강기정 7.0% 순으로 집계됐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KBS 의뢰 한국갤럽 조사(2월 8~9일)는 응답률 14.1%로 ARS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형배 21%, 김영록 19%로 두 후보가 접전을 보였다.

앞선 조사들이 대부분 1~2주 후보 간 격차가 2~4% 수준에 머문 반면, 2월 하순 실시된 알앤씨 조사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뉴스1·남도일보 의뢰 알앤씨 조사(2월 21~22일, ARS)에서는 민형배 25.2%, 김영록 17.6%로 격차가 7.6%p로 확대됐다. 이어 광주 불교방송·프레스이안 의뢰 알앤씨 조사(2월 25~26일)에서는 민형배 28.2%, 김영록 17.4%로 격차가 10.8%p까지 벌어졌다.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본 구조가 지목된다. 일부 ARS 조사에서는 조사 완료 기준 응답자 가운데 전남 비중이 6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인구 비율보다 전남 응답자가 많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된다. 후보 지지 성향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 응답자 비중이 달라지면 전체 지지율 격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평론가 오승운 메타보이스 이사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전남광주통합시장 관련 조사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실시된 영향도 있다”며 “표본을 추출할 때 인구 비례를 정확히 반영해야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 통합특별시 대비 국·과장급 16명 전보 인사 전은옥 통합실무준비단장·소진호 통합공항공항미래도시본부장

광주시는 2026년 3월 5일자로 국·과장급 1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자질 없이 준비하고,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제50주년 기념사업 등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인사 17명

국장급 인사로는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을, 통합공항공항미래도시본부장에 소진호 비서실장을, 문화체육실장에 황인재 시민소통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전은옥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조율하고, 통합 조직 설계 등 행정통합 전반을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소진호 통합공항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군



공항공항 이전과 범정부 협력, 지역 간 소통을 총괄한다. 통합공항공항 건설과 연계한 미래 도시 구상 등 중장기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리는다는 구상이다. 황인재 문화체육실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의 문화자산을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